학생수 줄어든 학원가 처절한 '생존 몸부림'

광주학원 3842개나
봉선동·수완지구 중심가
500m 사이 200개 몰려

원생 유치 치열한 경쟁
학부모 상담일지 매일 작성
경영난에 강사가 청소까지

#1.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B(여·37)씨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가 강의실을 청소한다. 운영난을 겪던 학원장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청소하는 직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B씨는 "최근에는 강사 전원이 학교로 나가 학원 홍보 문구가 담긴 학용품을 나눠주는 등 1명이라도 더 학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했다. 학원 시장에서 수요자인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자인 학원 수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광주에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3402개소(입시 보습 2108개소) ▲비교과 학원(평생직업 교육학원) 439개소 등 총 3842개의 학원이 운영중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집계한 전년도 학원 수(3839개소)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반면 광주지역의 초·중·고 학생 수는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14년 교육기본 통계'에서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무려 8072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학원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학원들로서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광주 사교육 1번지 '봉선동'과 떠오르는 사교육 1번지 '수완지구' 중심가는 불과 500~1000m 사이 도로 양측으로 200여개에 이르는 학원이 몰려있다. 이 구간에는 건물 1곳에 많게는 5~7개씩 학원이 입주한 곳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학원들은 원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학원생 이탈을 막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수완지구 보습학원들 사이에서는 강사들이 학부모와 매일 상담해 일지를 작성한 뒤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다.

그만큼 학원생 이탈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다. 과거 일정 규모 이상 학원들은 강의의 질을 보장하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강의업무와 청소 등 잡무를 구별했는데 지금은 자금난에 직면한 학원들이 잡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줄이고 강사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곳이 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부부가 최근 한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과가 없었던 부부는 경찰에서 "최근 학원생이 가파르게 줄어들어 3개월째 학원 임대료도 내지 못하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어왔다"고 때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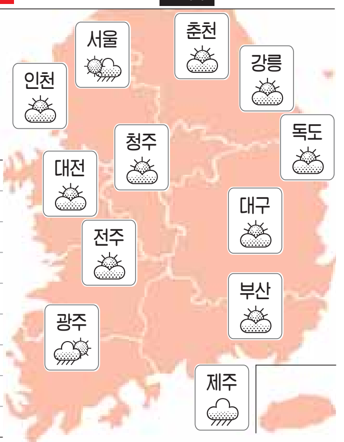
이주여성들 차례상 차림 배우기 28일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이주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추석 제사상 차림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02	달뜸	09:09
해짐	19:04	달짐	20:51

8월의 끝자락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북부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모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온뒤 갬	20/26	보 성	비온뒤 갬	19/24
목 포	비온뒤 갬	19/25	순 천	비온뒤 갬	20/25
여 수	비온뒤 갬	21/23	영 광	비온뒤 갬	19/25
나 주	비온뒤 갬	19/26	진 도	비온뒤 갬	19/24
완 도	비온뒤 갬	19/24	전 주	구름많음	20/27
구 례	비온뒤 갬	19/25	군 산	구름많음	20/27
강 진	비온뒤 갬	19/24	남 원	구름많음	20/24
해 남	비온뒤 갬	19/25	흑산도	비	19/24
장 성	비온뒤 갬	19/2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	북동~동	0.5~0.5
	먼바다	동~남동	0.5~1.5	북동~동	0.5~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	북동~동	1.5~2.5	북동~동	1.5~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15	09:24
	16:33	21:38
여수	11:00	04:40
	23:15	17:00

◇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10
빨래	20

◇ 주간 날씨

30(토)	31(일)	9/1(월)	2(화)	3(수)	4(목)	5(금)
21/28	20/28	21/28	22/27	22/27	22/27	23/26

광주·전남 구름낀 주말 '나들이엔 안성맞춤'

8월의 막바지로 접어든 29일 광주·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휴일인 30~31일은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선선할 것으로 보여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은 제주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모두 그칠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날 강우량과 합쳐 5~60㎜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선선할 전망이다. 주말인 30일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기온은 21~22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전날보다 낮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휴일인 31일도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20~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주말과 휴일 모두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염전노예' 업주 징역 3년6월 선고

법원, 브로커 2명도 실형

장애인들을 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온 뒤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시키고 수시로 폭행까지 한 염전 운영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장애인을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씨와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모(48) 씨를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신안군의 한 외딴 섬에 있는 홍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기소됐다. 이씨 역시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냈다.

홍씨는 채씨와 김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없이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각종 집안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매질을 하는 등 수시로 협박·폭행한 혐의(피유인자 수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해경, 언딘에 독점적 권한 주려고 노력"

검찰, 유착 의혹 확인

검찰이 해경의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구난업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8일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해경이 언딘에게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해경의 언딘 특혜 제공 여부가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해경은 부실한 초동조치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흠집을 입게 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행위에 어떤 법의 잣대를 적용할 지 검토중"이라고 언급, 해경의 언딘에 대한 행위가 사법 처리로 이어질 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검찰 안팎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김모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